

	<h1>보 도 자 료</h1>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과 장 지만석 (044-205-4510) 사무관 김재은 (044-205-4514)
 행정안전부	<p style="color: red;">2019년 12월 10일(화) 석간 (12. 10. 10:3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실 장 이종철 (052-928-8100) 연구관 신진동 (052-928-8101)

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2018년 통계 기준〉

- 안전사고 사망자 증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년 연속 감소 -

- ▶ 자살(12,463→13,670명, 9.7%↑) 및 법정감염병(2,391→3,071명, 28.4%↑) 사망자 수 크게 증가
- ▶ 교통사고 사망자는 '18년에 408명 감소하면서 4년간('15~'18) 19.4% 감소
- ▶ <교통사고>는 서울·경기, <화재>는 광주·경기, <범죄>는 세종·경북, <생활안전>은 부산·경기, <자살>은 서울·경기, <감염병>은 광주·경기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 ▶ 광주는 교통사고(5→3등급), 화재(3→1등급), 감염병(4→1등급)분야에서 2등급 이상 상승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일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9년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 ① 교통사고, ② 화재, ③ 범죄, ④ 생활안전, ⑤ 자살, ⑥ 감염병

□ 먼저,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¹⁾는 지난 3년간('15~'17)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증가하였다.

* 연도별 안전사고 사망자수(전체 사망자 중 비중) : ('15년) 31,582명(11.5%) → ('16년) 30,944명(11.0%) → ('17년) 29,545명(10.4%) → ('18년) **31,111명(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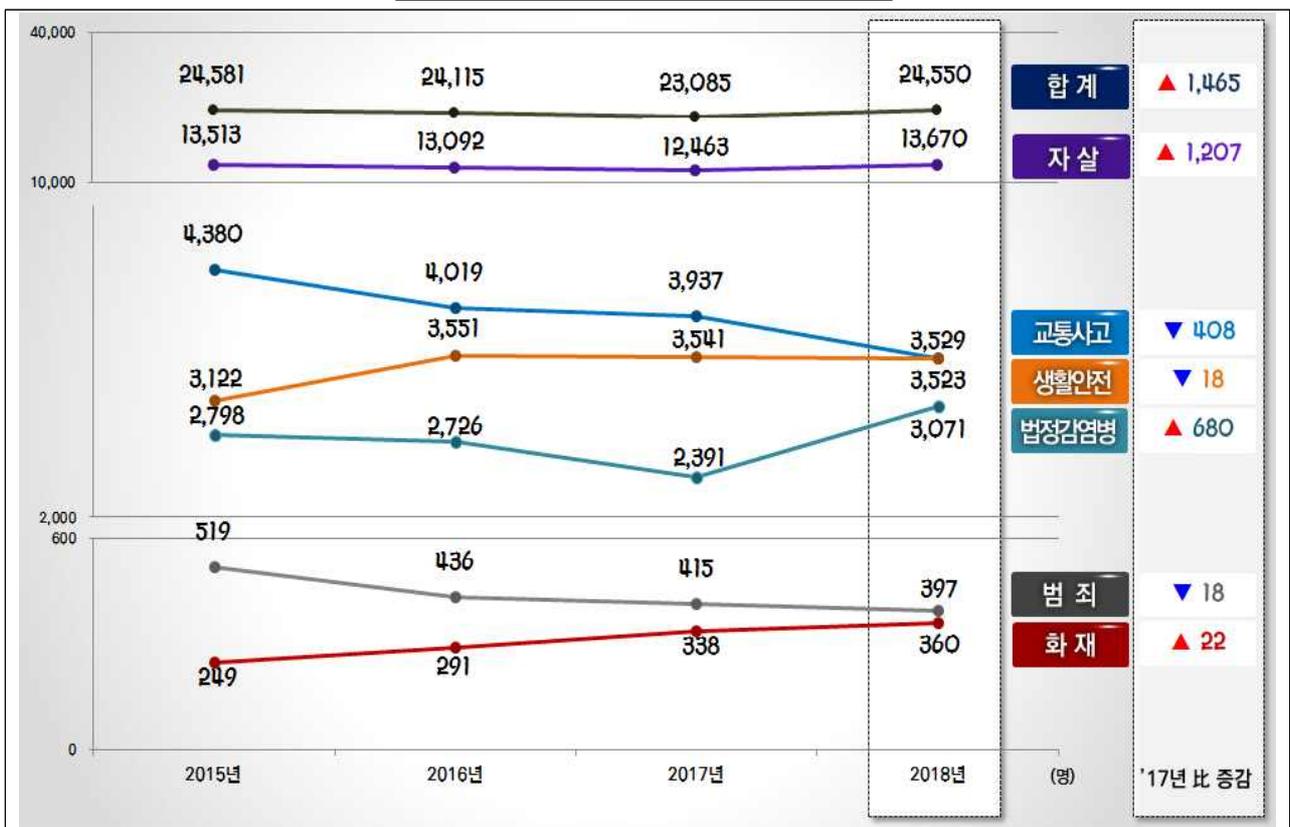
○ 자살 및 법정감염병 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 사망자 증가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1)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자연사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자+법정감염병사망자

- 자살 사망자는 10대, 30~40대, 60대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10대는 정신적, 30~40대는 경제적, 60대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자살 동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19년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
 - 감염병 사망자 증가는 C형 간염(152명)의 법정감염병 편입과 인플루엔자 사망자 급증(262명→720명)이 주요 원인이었다.
- 안전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가운데, 고무적인 것은 4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인데, 특히 '18년에 크게 감소*('17년 대비 10.4% 감소)하였다.

* (고속도로사망자 제외) ('15년) 4,380명 → ('16년) 4,019명 → ('17년) 3,937명 → ('18년) 3,52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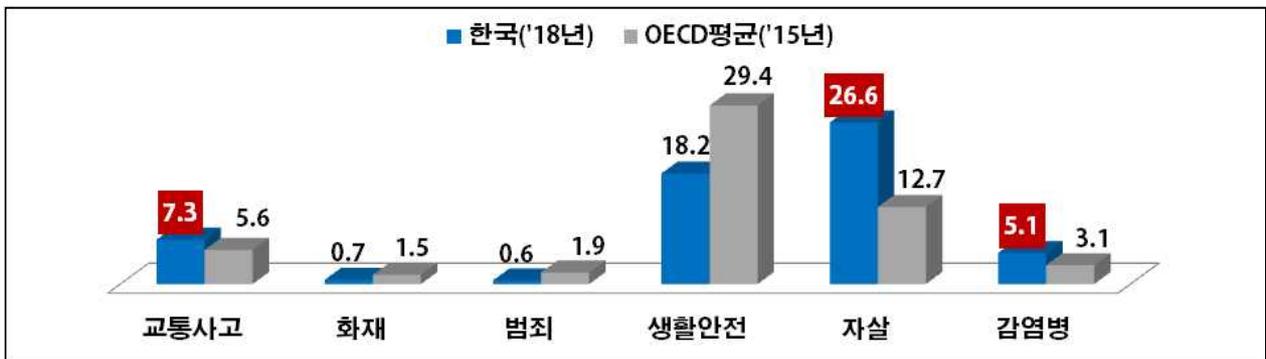
< 안전사고 사망자 수 변화 >



* **교통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사망자 제외),
생활안전 사망자 수(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중 낙상(추락) +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사망자),
범죄 사망자 수(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중 가해(타살) 사망자), **화재 사망자 수**(교통사고 화재 사망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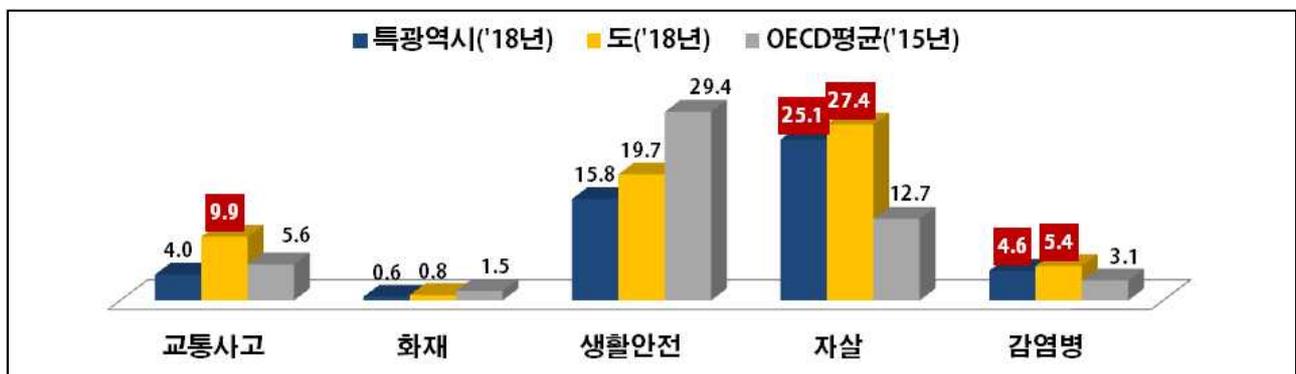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평균²⁾과 비교할 때 화재, 범죄, 생활안전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교통사고·자살·감염병 분야 사망자 수는 OECD 평균보다 높다.
- 특히 자살 분야는 OECD 평균과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중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 OECD 분야별 사망자수(인구 10만명)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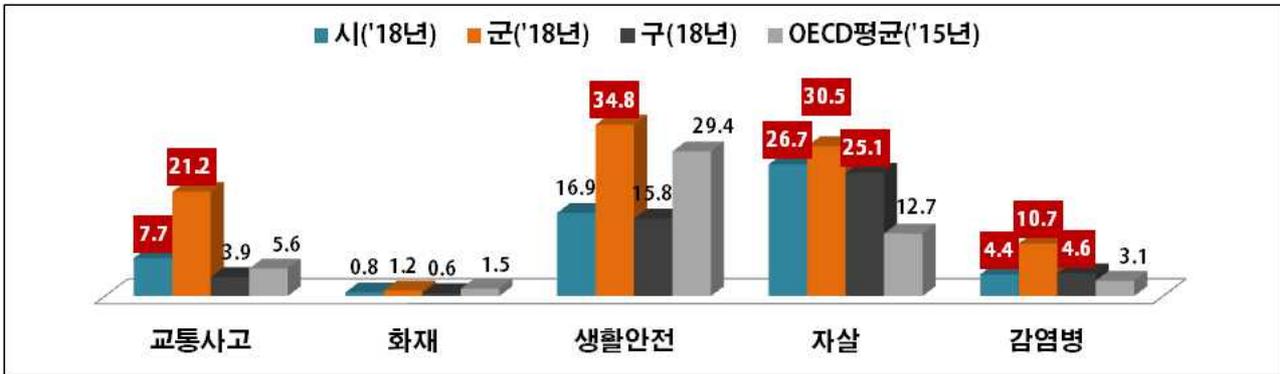
- OECD 사망자 평균보다 높은 분야(교통사고, 자살, 감염병)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광역시 및 자치구는 OECD 평균보다 낮으나, 군 단위는 약 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과 감염병의 경우, 모든 지역이 OECD보다 높았고, 특히 군 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지자체와 사망자수(인구 10만명) 평균 비교 >



2) OECD의 최신 통계인 2015년 값과 우리나라 최신 통계인 2018년 값을 비교한 것임

< 기초지자체와 OECD 사망자수(인구 10만명) 평균 비교 >



- 광역자치단체 중 '19년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1등급 지역은
 - ① 교통사고는 서울·경기, ② 화재는 광주·경기, ③ 범주는 세종·경북,
 - ④ 생활안전은 부산·경기, ⑤ 자살은 서울·경기, ⑥ 감염병은 광주·경기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광주는 3개 분야(교통, 화재, 감염병)에서 2개 등급 이상을 개선하여,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하위등급(4·5등급)이 없었으며, 화재(3→1등급)와 감염병 분야(4→1등급)는 1등급으로 상승했다.

< 등급 우수지역 분석 >

- ▶ (광주광역시, 등급상승)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구체적 목표('22년 자살 90명, 교통사고 63명 감축)를 설정하고, 자치구·경찰청·소방본부 등이 참석하는 TF 운영
- ▶ (서울·경기 자살 사망자 수 관리 양호) 서울 5.1%증가(특광역시 지역들은 평균 18.7%증가), 경기 7.9%증가(광역 도 지역들은 평균 11.1%증가)
 - 서울시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장년층(50~54세)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실시하여 장년층 자살자 수를 19명 감축하는 등 지자체 노력의 결실

- 반면 5등급 지역은 ① 교통사고는 세종·전남, ② 화재는 세종·경남, ③ 범주는 서울·제주, ④ 생활안전은 세종·제주, ⑤ 자살은 부산·충남, ⑥ 감염병은 대구·강원이었다.

- 경기도는 5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서 1등급이었으며, 이 중 4개 분야(밀출친 분야)는 5년 연속 1등급이었다.

- 반면, 제주(생활안전, 범죄)와 세종(화재), 전남(교통사고), 부산(자살)은 특정 분야에서 5년 연속 5등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5년 연속 1등급 및 5등급 지역 >

지역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 등급	광역	서울, 경기	-	세종	경기	경기		
	기초	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수원, 안양	의왕, 계룡	광명, 군포	의왕, 용인	화성, 계룡
		군	기장, 달성, 울주, 증평	달성, 울주, 울릉, 기장	진안, 신안	기장, 달성, 무안, 철곡	-	기장, 달성, 화천
		구	-	-	대구수성, 대전유성, 울산북	서울양천	서울서초, 대전유성	-
5 등급	광역	전남	세종	제주	제주	부산	-	
	기초	시	논산, 김제, 상주	포천	부천, 안산, 속초, 목포	포천, 삼척, 공주	보령, 김제	논산, 영천, 상주
		군	-	-	가평, 양양	가평, 평창, 산청	-	청송
		구	부산강서	서울종로	서울종로, 서울중, 부산중, 부산동, 대구중, 광주동	서울종로, 서울중, 부산강서, 인천중	부산중, 부산동	부산동

< 취약지역의 주요 원인 진단 및 분석 >

- ▶ (제주, 범죄분야) 5대 범죄 건수는 도 평균보다 40% 많은 123.8건/(만명)이지만 범죄예방 CCTV대수 증가율은 9개 도 중에서 가장 낮은 34%(도 평균 44%) 수준
 ※ 생활안전 분야는 '18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컨설팅 후 관광지 등 추락위험 지역 개선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도 지역 중 가장 많은 2.9%(121건, 그 중 추락사고 66건 감축(12.4%, 533건→467건))감축하였으나, 개인부주의로 발생하는 열상이 6.2%(62건) 증가하여 5등급 유지
- ▶ (세종, 화재분야) 도시형성 과정에서 사고('18.8.6, 건설현장 화재 3명 사망 등)가 많고 환산화재사망자 수가 특·광역시 중 1위(세종 0.149명/만명, 특·광역시 평균 0.111명/만명)
- ▶ (전남, 교통사고분야) 사망자가 도 평균(1.18명/만명) 보다 많은 1.68명/만명으로 열악하지만, 도로면적당(km²) 교통단속 CCTV대수 증가율은 30%^(1.9대→2.5대, 도 평균 3.2대)로 9개 도 중 1위, 사망자도 14%^(373명→321명)줄어드는 등 지자체 노력으로 향후 안전수준 상승 기대
- ▶ (부산, 자살분야) 사망자가 시 평균(2.58명/만명) 보다 많은 2.73명/만명이지만, 자살자 증가율이 5.0%(시 평균 18.7% 증가)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으며(1위/8개), 사회복지 결산액 비율도 33.7%→43.6%로 확대하는 등 사망자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향후 안전수준 변화 예상

□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시 단위는 수원시가 범죄와 자살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1등급이었고, 군 단위는 부산 기장군이 범죄를 제외한 5개 분야에서, 구 단위는 서울 송파구가 교통사고·범죄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기초자치단체 43개 지역은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 개선을 이루어 냈는데, 전남 곡성(교통)과 경북 영양(화재)은 5등급(최하)→1등급(최상)으로 크게 상향되었고, 특히 전남 보성은 감염병을 제외한 5개 분야에서 등급 상승을 이뤄내면서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높였다.

유형	개선정도 우수지역 (★ 등급개선 분야)
시 (10/75)	남원★4, 아산★3, 과천★3, 문경★3, 경산★3, 거제★3, 화성★3, 전주★3, 김천★3, 광양★3
군 (24/82)	보성★5, 옹진★4, 보은★4, 영양★4, 영동★4, 의령★4, 진천★4, 경남 고성★4, 곡성★3, 증평★3, 무안★3, 진도★3, 옥천★3, 성주★3, 봉화★3, 거창★3, 의성★3, 울진★3, 장수★3, 순창★3, 청도★3, 해남★3, 예산★3, 구례★3
구 (9/69)	부산사하★4, 서울금천★4, 서울도봉★4, 대구남★3, 부산영도★3, 광주북★3, 서울성동★3, 부산연제★3, 광주동★3

< 상승지역의 주요 원인 진단 및 분석 >

- ▶ (전남 보성) ('18년) 쏠 분야 중·하위 → ('19년) 5개 분야 등급 상승
(교통5→4, 화재5→4, 범죄3→2, 생활안전3→2, 자살5→2)
- (분석) 자체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의 48.1%가 안전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임을 감안, 안전문화 활동의 변화 필요성 도출(교통사고 23명 중 16명이 안전취약계층)
- (사업)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방문 교육 시,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교통, 범죄), 소방(화재), 남도안전학당(생활안전, 감염병, 자살) 강사 등이 함께 교육

○ 반면, 시 단위는 전북 김제시(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구 단위는 서울 종로구(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 부산 중구(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대구 서구(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가 4개 분야에서 5등급에 머물렀다.

- 특히, 대구 서구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4등급에 머물러, 전 분야에서 하위등급(4.5등급)을 기록하였다.

< 등급 하위지역 주요 원인 진단 및 분석 >

▶ (전북 김제)

- 교통사고 : 안전벨트 착용률이 62.3%(시평균 84.0%)로, 작년보다 1.74%p 감소한 것을 감안, 교통문화 개선 등에 관심 필요
※ 김제시 사망자 증가 (2.36명→2.75명/만명) / 시 평균 사망자 감소(1.07명→ 0.94명/만명)
- 다만, 자살분야 등급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자살자 수는 감소(14.3%, 42명→36명)

▶ (서울 종로)

- 화재 : 종로 고시원 화재('18.11.9, 7명 사망) 등으로 사망자 수 증가
- 감염병 : 취약계층 예산지원 비율은 16%수준으로 구 평균 25% 보다 낮음

▶ (부산 중)

- 감염병 :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고령인구는 구 평균보다 57% 많으나(2,325명/만명, 구 평균 1,482명/만명) 취약계층 예산지원 비율은 21%로 구 평균 25%보다 낮음
- 다만, 나머지 분야는 위해지표(사망자, 발생건수) 개선으로, 안전수준 상향 여지가 있음

▶ (대구 서) 모든 분야의 등급개선 및 위해지표 관리가 되지 않은 지역

- 전년대비 교통사고(14명→17명), 화재(0명→5명), 감염병 사망자(19명→26명) 증가

□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 올해, 행정안전부는 보다 정확한 지역안전수준 진단을 위해 일부 지표를 개선하였다.

- 우선, 음식점 및 주점업 수(범죄·자살분야), 제조업체 수(범죄)와 같이 안전 관련 지표로서의 수용도가 낮은 지표를 삭제하고,
- 위험환경과 직접적 관계가 높은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범죄분야)로 지표를 변경하였다.
- 또한, 지자체의 여러 경감 노력을 지수에 반영하기 위해, 소방정책 예산액 비율(화재), 노인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자살) 등도 지표에 추가하였다.

- 이번 결과는 [행정안전부\(www.mois.go.kr\)](http://www.mois.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http://www.ndmi.go.kr)이나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http://www.safemap.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18년은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5.3% 증가했지만 지수등급이 개선된 지역은 안전사고 사망자 및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18% 감축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안전사고 사망자 등을 줄일 수 있도록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이번 지역안전지수 결과와 연계하여 안전이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지자체에 지원한다.
 - *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지역(3%) + 전년 대비 지수 개선도가 높은 지역(2%)
 - 또한 등급이 낮은 지자체에는 지역안전지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 오는 '20년부터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부출연연구원, 시·도 발전연구원과 함께 지수 분야별 특징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맞춤형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안전지수는 지역의 안전수준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라며,
 -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1

2019년 광역자치단체 분야별 안전등급

< 안전지수 등급 표기 방법 >

(안전수준)

N : 시/도, 시/군/구 5개 비교 그룹 내에서 해당연도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1등급일수록 안전)

N★/●

(개선정도)

★ : 전년대비 등급상승 수

● : 전년대비 등급 상승은 없지만 위해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된 지역

특별·광역시(8개소)

	시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	서울특별시	1●	2	5●	2●	1★	4
2	부산광역시	2●	2★★	4●	1	5●	4●
3	대구광역시	3●	4	2	2●	4●	5●
4	인천광역시	2	3	3	4	3★	2★
5	광주광역시	3★★	1★★	3	3●	2	1★★★
6	대전광역시	4	4	4	4●	4	3●
7	울산광역시	4	3	2●	3●	3	3
8	세종특별자치시	5	5	1	5●	2	2

도(9개소)

	시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	경기도	1●	1●	4	1	1●	1●
2	강원도	3●	3★	3★	4	4●	5●
3	충청북도	2	3★★	4	3	3	3●
4	충청남도	4	3	3	4	5	3●
5	전라북도	3★	4	2	2●	3★	3
6	전라남도	5●	4●	2	3★	2★	4●
7	경상북도	4	2★	1★	3●	3	4★
8	경상남도	2	5	3	2●	2	2
9	제주특별자치도	3	2●	5	5●	4	2

□ 1등급 지역

구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시 (75개소)	경기 수원 경기 성남 경기 안양 경기 부천 경기 과천 경기 군포 경기 의왕	경기 수원 경기 안양 경기 부천 경기 구리 경기 오산 충남 계룡 경남 창원	경기 의왕 경기 용인 충남 계룡 경북 영주 경북 문경 경남 사천 경남 밀양	경기 수원 경기 안양 경기 부천 경기 광명 경기 고양 경기 군포 경남 창원	경기 광명 경기 과천 경기 구리 경기 의왕 경기 하남 경기 용인 경기 화성	경기 수원 경기 광명 경기 오산 경기 용인 경기 화성 충남 계룡 경남 거제
군 (82개소)	부산 기장 대구 달성 인천 강화 울산 울주 충북 증평 전남 곡성 경북 영양 경북 봉화	부산 기장 대구 달성 인천 옹진 울산 울주 강원 화천 경북 영양 경북 칠곡 경북 울릉	전북 진안 전북 장수 전북 임실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북 예천 경북 봉화	부산 기장 대구 달성 울산 울주 충북 증평 충북 진천 전남 무안 전남 신안 경북 칠곡	부산 기장 인천 옹진 충북 증평 충북 진천 전남 화순 전남 영암 전남 무안 경북 울릉	부산 기장 대구 달성 강원 영월 강원 화천 강원 양구 충북 진천 전남 담양 경북 울릉
구 (69개소)	서울 은평 서울 관악 부산 동래 부산 북 부산 사하 부산 연제 대구 달서	서울 성동 서울 광진 서울 성북 서울 양천 서울 서초 서울 송파 인천 계양	부산 강서 대구 북 대구 수성 인천 연수 광주 남 대전 유성 울산 북	서울 광진 서울 성북 서울 노원 서울 양천 서울 동작 서울 송파 서울 강동	서울 마포 서울 양천 서울 서초 서울 송파 부산 강서 인천 동 대전 유성	서울 송파 부산 연제 인천 연수 광주 서 광주 광산 대전 유성 울산 북

※ 밑줄친 지역은 5년 연속 1등급

□ 5등급 지역

구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시 (75개소)	강원 태백 충남 공주 충남 논산 충남 당진 전북 남원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기 이천 경기 포천 강원 태백 강원 삼척 충남 보령 전북 정읍 경북 안동 경남 밀양	경기 수원 경기 의정부 경기 부천 경기 평택 경기 안산 경기 구리 강원 속초 전남 목포	경기 포천 강원 삼척 충남 공주 충남 보령 충남 당진 전북 정읍 전북 김제 경북 문경	경기 포천 강원 태백 충남 보령 충남 당진 전북 정읍 전북 김제 경북 영천 경북 상주	강원 삼척 충남 논산 전북 김제 경북 영천 경북 상주 경북 문경 경남 사천 경남 밀양
군 (82개소)	강원 화천 강원 고성 전북 무주 전남 강진 전남 영암 경북 청송 경남 의령 경남 고성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충남 서천 전북 장수 전남 영광 경북 의성 경북 고령 경남 고성	부산 기장 경기 가평 강원 홍천 강원 정선 강원 양양 충남 태안 전남 장흥	경기 가평 강원 평창 강원 고성 강원 양양 충북 괴산 충남 태안 전북 진안 경남 산청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충남 태안 경북 군위 경북 청송 경북 청도 경남 함양	충남 청양 전북 진안 경북 군위 경북 의성 경북 청송 경북 영덕 경북 고령 경남 창녕
구 (69개소)	부산 강서 대구 서 인천 중 광주 광산 대전 동 대전 대덕 울산 북	서울 종로 부산 강서 대구 동 대구 서 인천 중 인천 남동 대전 동	서울 종로 서울 중 부산 중 부산 동 부산 부산진 대구 중 광주 동	서울 종로 서울 중 부산 중 부산 강서 대구 중 인천 중 대전 대덕	부산 중 부산 서 부산 동 대구 서 대구 남 인천 남 대전 동	서울 종로 서울 중 부산 중 부산 동 대구 중 대구 서 광주 동

※ 밀줄친 지역은 5년 연속 5등급

붙임 3

3년 연속 상승 및 하락 지역 (기초)

분 야	3년 연속 상승(29개소)			3년 연속 하락(25개소)		
	시(4개)	군(16개)	구(9개)	시(3개)	군(14개)	구(8개)
교통사고	-	인천 강화 경북 군위 경북 의성 경북 영양 경북 성주	부산 북	-	충북 진천 전북 무주 전남 강진	서울 구로 서울 영등포 서울 송파
화재	경기 안성 강원 춘천	충북 영동	서울 서초 인천 동구	경기 의정부 강원 태백	충남 부여 충남 서천 전북 임실 전남 영광 경북 고령	대구 동 인천 서
범죄	강원 태백 충북 제천	-	-	충남 공주	-	-
생활안전	-	-	서울 송파	-	-	부산 해운대
자살	-	인천 옹진 전북 진안 전남 고흥 전남 영암	서울 용산 서울 마포 광주 동	-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충남 태안 경북 군위 경남 남해	부산 동래
감염병	-	강원 영월 전북 장수 전남 담양 전남 강진 전남 진도 경북 영양	부산 연제 광주 남	-	경기 군포	경남 창녕

붙임 4

분야별 최대 변동폭 및 지역 (기초)

분 야 (최대 변동폭 + : 급등, - : 급락)	등급 급등(42개소)			등급 급락(41개소)		
	시(8개)	군(26개)	구(8개)	시(8개)	군(23개)	구(10개)
교통사고 (+4, -4)		전남 곡성			강원 화천	
화재 (+4, -4)		경북 영양			전북 장수	인천 남동
범죄 (+2, -2)		강원 횡성 충북 괴산 경북 청도			전남 화순	
생활안전 (+1, -1)	경기 과천시 경기 시흥시 경기 화성시 충남 아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시 경남 창원시	인천 옹진 충북 보은 충북 옥천 충북 영동 충북 증평 충북 진천 충북 단양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담양 전남 곡성 전남 구례 전남 보성 경북 의성 경북 예천 경북 봉화 경남 고성	서울 성북구 서울 송파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광주 동구 울산 북구	경기 의정부 경기 동두천 경기 의왕시 강원 속초 전북 익산 전북 김제 경북 포항 경남 사천	강원 횡성 강원 정선 강원 양구 강원 인제 강원 고성 강원 양양 충남 금산 전북 진안 전북 순창 전남 고흥 전남 화순 전남 장성 경북 고령 경북 울진 경북 울릉 경남 하동 경남 거창	서울 동대문 서울 도봉 서울 금천 서울 강남 부산 부산진 부산 해운대 대전 대덕
자살 (+3, -3)		충북 영동 충북 증평 전남 보성 전남 화순			강원 양구 강원 인제 충북 괴산	
감염병 (+3, -4)			광주 서			서울 중 대구 중

□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현황**

연 도	전체 사망자 수(명, A)		안전사고 사망자(명, B)		안전사고 사망률 (%, B/A*100)
		전년 대비 증감(%)		전년 대비 증감(%)	
2014	267,692	-	32,114	-	12.00
2015	275,895	+3.1	31,582	△1.7	11.45
2016	280,827	+1.8	30,944	△2.0	11.02
2017	285,534	+1.7	29,545	△4.5	10.35
2018	298,820	+4.7	31,111	+5.3	10.41

※ △(전체 사망자)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질병, 사고 등 각종 이유로 사망하는 전체 인원
 △(안전사고 사망자) 1년 동안 각종 안전사고로 사망 + 법정 감염병으로 사망한 인원
 △(비율) 안전사고 사망자/전체 사망자 * 100

□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위해지표 현황**

분야	위해	연도별 통계					'17년 비 증
		2014	2015	2016	2017	2018	
교통*	교통사고 사망자수	4,489명	4,380명	4,019명	3,937명	3,529명	△408명(10.4%)
화재*	화재 사망자수	322명	249명	291명	338명	360명	+22명(6.5%)
	화재 발생건수	41,624건	43,915건	42,947건	43,747건	41,833건	△1,914건(4.4%)
범죄	5대범죄 발생건수	578,334건	560,813건	527,207건	497,005건	483,814건	△13,191건(2.7%)
생활안전	구급발생건수	148,927건	157,075건	150,250건	151,122건	152,603건	+1,481건(1.0%)
자살	자살사망자수	13,836명	13,513명	13,092명	12,463명	13,670명	+1,207명(9.7%)
감염병	법정감염병사망자수	2,765명	2,798명	2,726명	2,391명	3,071명	+680명(28.4%)

* 교통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사망자 제외), 화재 사망자 수(교통사고 화재 사망자 제외)

□ 지역안전지수 산출식

$$\begin{aligned} \text{안전지수} &= 100 - (\text{위해지표} + \text{취약지표} - \text{경감지표}) \\ &= 100 - \left\{ \sum_{i=1}^n (\omega_i \times H_i) + \sum_{j=1}^m (\alpha_j \times C_j) - \sum_{k=1}^o (\beta_k \times M_k) \right\} \end{aligned}$$

ω_i : 위해지표별 가중치 H_i : 위해(harm)지표 점수 α_j : 취약지표별 가중치
 C_j : 취약(cause)지표 점수 β_k : 경감지표별 가중치 M_k : 경감(mitigation)지표 점수

※ 등급은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5개 그룹별로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 비율로 산정

□ 2019년 핵심지표 및 가중치

※ 파랑색은 개선, 빨간색은 추가된 지표

분 야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가중치	50%	25%	25%
교통 사고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500) ※ 고속도로 사망자 제외	①인구 만명당 재난 약자수(.139) ②인구 만명당 의료보장 사업장수(.014) ③인구 만명당 자동차 등록대수(.097)	①행정구역 면적당 응급의료기관수(.080) ②도로 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076) ③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094)
화재	인구 만명당 환산사망자*(.500) *사망자(0.496)+ 발생건수(0.004) ※ 교통사고 화재 제외	①인구 만명당 재난 약자수(.156) ②인구 만명당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066) ③인구 만명당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체수(.028)	①인구 만명당 의료인력(.067) ②발생 건수당 화재구조실적(.062) ③행정구역 면적당 소방서 종사자수(.078) ④소방정책 예산액 비율(.043)
범죄	인구 만명당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500) *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①인구밀도(.140) ②스트레스 인지율(.055) ③고위험 음주율(.055)	①인구 만명당 경찰 사업체수(.123) ②인구 만명당 범죄예방 CCTV대수(.127)
생활 안전	인구 만명당 생활안전관련 구급건수(.500)	①인구 만명당 건설업 종사자수(.056) ②인구 만명당 제조업 종사자수(.037) ③인구 만명당 재난 약자수(.157)	①구급 센터당 전체 이송건수(.075) ②인구 만명당 의료기관수(.084) ③행정구역 면적당 AED설치대수(.091)
자살	인구 만명당 자살 사망자수(.500)	①인구 만명당 독거 노인수(.148) ②음주율(.036) ③인구 만명당 기초수급자수(.066)	①인구 만명당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수(0.37) ②인구 만명당 자살예방관련기관수(.059) ③사회복지예산 결산액 비율(.097) ④노인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058)
감염병	인구 만명당 법정감염병 사망자수(.500)	①인구 만명당 고령 인구수(.155) ②인구 만명당 의료급여1종 인구수(.070) ③인구 만명당 건강보험 외래급여일수(.024)	①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085) ②취약계층지원 결산액 비율(.113) ③행정구역 면적당 지역보건기관수(.052)